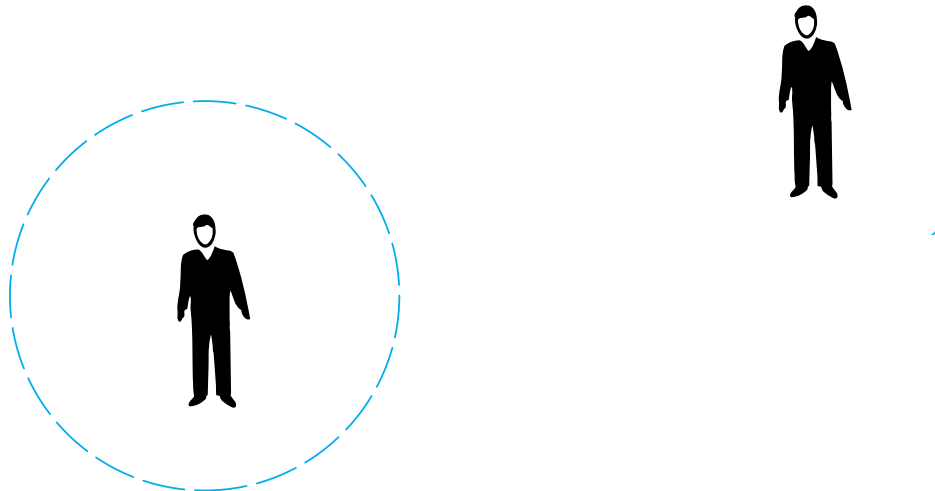


2. 권위의 원리

권위를 이해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네 가지 관할권(부모, 정부, 교회 지도자, 고용주)을 분별하는 데 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지금 이 문제는 누구의 권한에 속한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권위자를 통해 우리를 지도하고 보호하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우리가 권위자들을 거역하면 특정 지역과 사람들을 관할하는 악한 통치자들의 파괴적 공격에 노출되고 만다.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은 것'이다. (사무엘상 15:23 참조)

왜 까다로운 권위자를 만나게 되는가?



품성 훈련의 필요성

하나님께서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품성이 자라는 데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를 위해 까다로운 권위자들을 자주 쓰신다.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부당하게 옥에 갇혔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은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목적을 위해 그를 준비시키시는 교육장이었다. 어려서 품성을 배우지 못하면 커서도 훈련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인들의 갈등은 실제로 과거에 해결하지 않은 청소년기의 갈등인 것이다.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어떤 권위 질서든지 거기에는 긴장과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그것은 권위자가 규율을 정하면,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은 그 한계를 시험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단 한 가지 제한을 두셨다. 아담과 하와는 그 한계를 시험했다. 권위자가 성숙하지 못하여 지혜나 사랑을 보이지 못할 때도 갈등이 일어난다.

지키지 않은 약속들

기대가 관계를 해친다. 지도자가 약속을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다. 이 상처를 곧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원망의 쓴 뿌리가 된다. “……쓴 뿌리가 나서……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히브리서 12:15)

교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잠언 13:10) 교만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지 않는 것이다. 교만은 최종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자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교만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며 남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교만은 자기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이다.

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잠언 22:8) 여기서 악은 부도덕하게 자기 의지를 세우는 것이다. 제 5계명은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신다. (에베소서 6:4 참고) 아버지가 실망스런 일에 대해 화를 내거나 분노로 징계하는 것은 자녀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노엽게 하는 행동이다.

권위자가 지혜롭게 점검해야 할 것

여러분이 나중에 한 번 하자고 던지시 한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갖게 하는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아랫사람들에게 “내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은 것이 있으니?”라고 물어 보라. 아마도 빠르게 받아 적어야 할 만큼 많을 것이다. 당신이 한 말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든 논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이행하라.

자녀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두 가지가 뭐니?”하고 물으면 대부분 “우리 아버지가 제발 좀 화를 내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잘못하셨을 때는 용서를 구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한다. 이 두 가지를 지키면 다음 장에 나오는 비극적인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비정상적 관계의 발전과정

부모의 반응	십대에게 나타나는 징후	영역	십대의 내적 갈등	통찰력
		가족	1.	
			2.	
			3.	
		하나님	4.	
		친구	5.	
		데이트	6.	
		자아	7.	
		미래	8.	

자살의 네 가지 유형

1. 정신적

(약물, 잘못된 철학)

2. 도덕적

(정욕에 굴복)

3. 영적

(주술행위에 참여)

4. 육체적

(죽음)

자살의 네 유형

1. 정신적 자살: 약물(마약), 잘못된 철학

- **약물: 정신적 책임감 약화** (고린도후서 10:5)
치료법: 금식, 성경암송
- **잘못된 철학: 그리스도를 제외함** (골로새서 2:8)
치료법: 금식, 성경암송

2. 도덕적 자살: 정욕에 굴복함

- **악에 대항함 = 삶의 기초**
- **정욕의 결과 = 더 큰 정욕** (갈라디아서 6:7)

3. 영적 자살: 주술행위에 참여

- **국가 패망의 3단계**
 1. 하나님의 말씀 거부
 2. 부도덕 용납
 3. 사탄 숭배
- **결과**
 1. 비합리적인 두려움
 2. 설명할 수 없는 불안
 3. 비논리적이고 분열된 사고
 4.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함
- **해결책**
 1.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한다. (요한일서 1:9)
 2.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이름을 주장한다. (요한계시록 12:11)

4. 육체적 자살: 죽음 (히브리서 9:27)

쓴 뿌리의 요새 허물기

사탄에게 넘겨준 '땅'을 되찾는 것이 도덕적 순결을 얻는 길이다

1. 쓴 뿌리를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는 것을 연습한다.

- 바둑판처럼 격자눈금을 그린다 - 이것은 인간의 혼(지성, 감정, 의지)을 나타낸다.
- 한 칸을 검게 칠한다 - 에베소서 4:26-32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원망의 쓴 뿌리를 갖는 것은 우리 혼의 한 부분을 사탄에게 내주는 것이다. 이때 사탄은 자기 소유지에 요새를 세울 합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 요새를 그린다 - 요새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생각이다. 이 요새를 중심으로 사탄은 두려움, 분노, 염려 등 각종 파괴적인 정서로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 다른 네모칸들을 가리키는 화살표를 그린다 -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문자(옥졸)에게 넘겨주신다고 성경은 말한다. 우리가 고문자(옥졸)와 싸우려고 하면, 사탄은 요새로 후퇴했다가 다시 공격할 기회를 노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새를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참자유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되찾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요새를 무너뜨릴 수 없다.
- 실행 단계를 적는다 - 각 단계를 설명하면서 그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 원망의 쓴 뿌리가 있는 사람에게 그 쓴 뿌리를 극복하고 싶은지 묻는다.
- 실행 단계의 처음 세 가지 사항을 놓고 기도하게 한다 - 나중에 따로 기도할 때 그가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도록 격려한다.

2. 이 도표에 사용된 핵심 성경 구절들을 암송한다.

- | | | |
|---------------------------------------|---------------------------------------|---------------------------------------|
| <input type="checkbox"/> 히브리서 4:12 | <input type="checkbox"/> 에베소서 4:26-27 | <input type="checkbox"/> 고린도후서 10:1-5 |
| <input type="checkbox"/> 마태복음 18:34 | <input type="checkbox"/> 에베소서 6:12 | <input type="checkbox"/> 히브리서 12:15 |
| <input type="checkbox"/> 요한일서 1:9 | <input type="checkbox"/> 요한일서 2:9 | <input type="checkbox"/> 시편 23:3 |
| <input type="checkbox"/> 에베소서 4:31-32 | <input type="checkbox"/> 요한계시록 12:11 | <input type="checkbox"/> 골로새서 2:14-15 |

3. 쓴 뿌리의 요새를 어떻게 허물었는지 적는다.

이 방법을 적용하여 경험한 것을 기록한다. 상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품성을 기르고 계신지 적어본다.

4. 다른 사람이 쓴 뿌리를 극복하도록 도와준 일을 계속 기록해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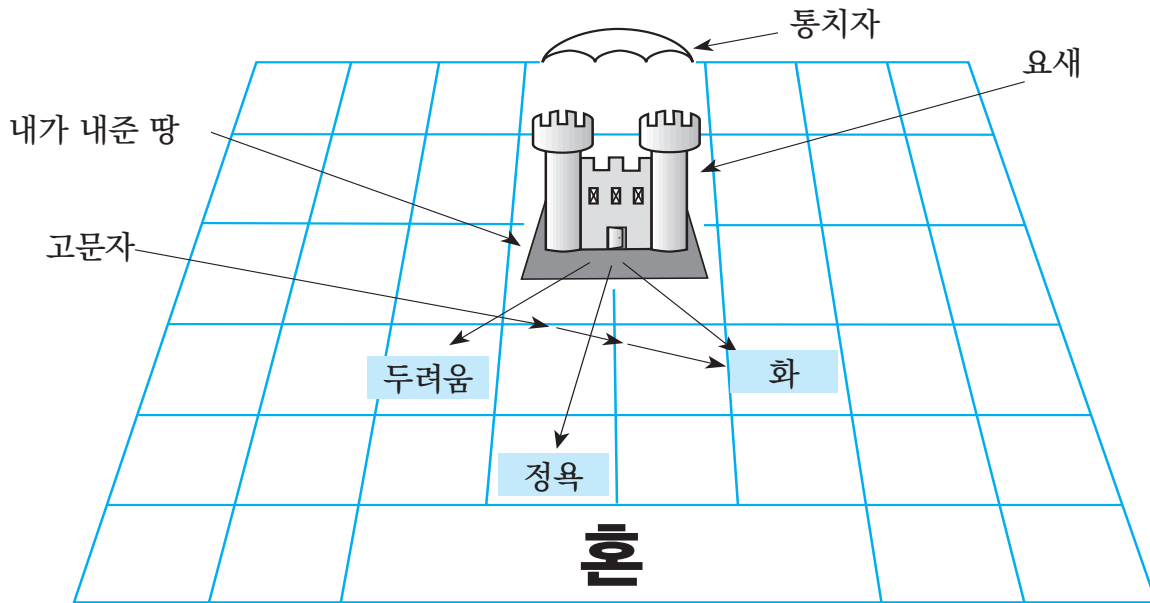
내가 이 내용을 나누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록한다. 대화 내용을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면, 고난의 원리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과 적용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5. 내가 도운 사람들이 간증문을 쓰도록 격려한다.

내가 도운 사람이 정말로 쓴 뿌리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걸 증명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그가 자신의 간증문을 쓰도록 격려하고, 그 간증문의 사본을 받아 둔다. 간증문을 쓰는 사람은 용기를 얻게 되고, 나는 나대로 쓴 뿌리의 요새를 정복하는 법에 대해 더 큰 통찰력을 얻게 된다.

혼의 싸움터

쓴 뿌리의 요새 허물기



혼: 영과 대조되는 우리의 지성·감정·의지(헬라어 '프시케') (히브리서 4:12)

땅: 법적 지배권이 미치는 영역 (우리 혼의 부분, 한글성경에서는 '틈'으로 번역됨) (에베소서 4:27)

요새: 성경말씀에 반대되는 생각과 결론 (고린도후서 10:4-5)

고문자(옥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가르치기 위해 허락하시는 괴로움 (마태복음 18:34)

통치자: 관할 영역을 다스리는 악한 통치자 (에베소서 6:12)

기도의 단계

1. 교만과 원망의 쓴 뿌리를 죄로 고백한다. (히브리서 12:15, 요한일서 1:9)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를 주장한다. (요한일서 1:7, 요한계시록 12:11, 골로새서 2:14-15)
3. 사탄에게 내준 땅을 되찾아 달라고 소리 내어 하나님께 구한다. (시편 23:3)
4. 진리의 말씀으로 요새를 허문다. (고린도후서 10:4-5)

쓴 뿌리의 요새

쓴 뿌리의 요새를 허무는 법을 나눌 때 유의할 점

우리의 혼

• 문제

□ 쓴 뿌리는 우리의 혼을 더럽힌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따르면서,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살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쓴 뿌리가 돌아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이다. (히브리서 12:14-15 참고)

• 결과

□ 쓴 뿌리는 우리의 혼을 쇠약하게 한다.

우리가 악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악한 욕망이 생기도록 내버려두시고, 대신 ‘영혼을 쇠약케’ 하신다. 이때 하나님께 응답하여 그분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 혼의 역량이 떨어진다. (시편 106:15 참조)

• 해결책

□ 잃어버린 땅은 되찾을 수 있다.

시편 23:3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씀은 특별히 의미가 깊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 주신다. (시편 23:3, 5 참조)

‘땅’

• 의미

□ 우리 혼의 관할 영역

쓴 뿌리가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한다. (에베소서 4:27) 여기서 ‘틈’이란 헬라어

로 ‘법적 지배권이 미치는 곳’을 의미한다. 왕국에서는 왕의 권위가 미치는 땅이 관할 영역이 된다.

• 문제

□ 땅을 빼앗기면 고통이 찾아온다.

사탄에게 사람의 혼의 땅을 내주면, 사탄은 여기에 요새를 세울 합법적 권리를 갖고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혼의 다른 영역에까지 고통을 주기 시작한다.

• 해결책

□ 땅은 한 번에 하나씩 회복된다.

에베소서 4:26-32에 따르면, 우리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을 때마다 사탄에게 더 많은 땅을 넘겨주게 된다. 우리가 여러 사람에게 대해 쓴 뿌리를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이 전쟁에서 적에게 내준 땅은 한 번에 하나씩 되찾아야 한다.

요새

• 의미

□ 잘못된 사고방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닌’ 헛된 철학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신다. 그러한 철학을 믿는 것은 사탄이 우리의 혼을 ‘더럽히도록(노략질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2:8참조)

• 결과

□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결정

사탄이 성경말씀에 반대되는 일련의 논리를 우리 마음 속에 구축하고 나면, 이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의 ‘의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잘못된 결정은 두려움, 분노, 우울, 걱정과 같은 파괴적인 감정을 낳는다.

• 해결책

□ 요새는 허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다. 그것은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 후서 10:4) 이 진리의 무기는 모든 잘못된 철학과 헛된 상상을 몰아내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진리의 가르침과 일치시킨다.

요새의 실례

•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 잘못된 결론을 근거로 사탄은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게 하고, 자녀들이 부모님께 거역하게 하고, 직원이 일을 그만두게 하고, 교회 내에 파벌이 생기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32:27)

하나님께서서는 아내들이 온유하고 평온한 영으로 남편에게 진정한 공경을 보이는 법을 배울 때,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들의 마음까지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베드로전서 3:1-2)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에게 쓴 뿌리를 품지 말라고 촉구하신다. 남편이 아내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아내는 귀중한 ‘돕는 자’가 된다. (에베소서 5:25-33)

• “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수해야 해.”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정중한 호소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가해자들을 벌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보복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 맡겨야 할 일이다. “……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로마서 12:19)

고문자(옥졸)

• 의미

□ 혼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

엄청나게 큰 빛을 탕감 받은 종이 자기에게 아주 적은 빛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을 때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고문자(옥졸)들에게 넘겼다. (마태복음 18:34 및 23-34 참조)

여기서 고문자(옥졸)의 동사 형태가 헬라어로 ‘고문하다’라는 뜻이다. 이 동사의 어근은 ‘고통과 수고를 불러오다, 혼에 고뇌와 번민을 주다’라는 뜻이다.

• 문제

□ 하나님은 쓴 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고문자(옥졸)를 보내신다.

부당한 종의 비유에서 주님은 종이 자기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을 보고 꾸짖으셨다. “……내가 네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마태복음 18:32-34)

쓴 뿌리를 품은 사람은 자기가 만든 감옥에 갇힌다. 그는 화를 내고 낙심하며, 우울증과 환멸감에 빠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마련해 주신 관계들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책임에 집중하지도 못한다.

• 해결책

□ 자비의 의미를 이해한다.

부당한 종의 비유에서, 그 종은 자비를 구하지 않고 단순히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청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마태복음 18:26)

주인은 그 종이 스스로 빛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깨닫도록 그를 고문자(옥졸)들에게 넘겼다. 이때 종이 자비를 구했다라면 주인은 빛을 전부 탕감해주었을 것이고, 그는 자비를 얻은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쓴 뿌리의 요새를 허무는

우리의 무기를 이해한다

• 준비

우리가 사탄에게 ‘땅’을 내주면, 우리는 그의 통치 즉 악의 권세, 그리고 어둠의 주관자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된다.

성경은 쓴 뿌리로써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하는 한편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12)

다음 구절은 사탄을 정복하고 그의 요새를 허무는 성경적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 “그들이 그를 이겼으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요한계시록 12:11)

□ 어린 양의 피

사탄과 그의 모든 무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탄의 손에서 법적 문서를 빼앗으셨다.

이 문서는 사탄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할 권한을 주었던 것이었다. 예수님은 이 문서를 십자가에 못박고 그 안의 모든 기록을 자신의 피로 지우셨다.

이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사탄을 구경거리로 만드셨다. 이것은 마치 승리한 로마 장군들이 적군들을 끌고 시내에서 가두행진을 벌이는 것과 같다. 이것은 적군이 완전히 정복되고 무장해제를 당하였으므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아무런 권위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인해 사탄이 오늘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을 거절하거나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스스로 사탄에게 권위를 내줄 때 뿐이다. 이 놀라운 진리가 다음 구절에 나타나 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13-15)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한계시록 1:5)

□ 우리의 증언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우리 삶을 지배하던 육신의 일들을 회개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위대한 업적을 감사드립니다. (골로새서 2:6-12 참조)

이 진리를 증언하는 길은 우리의 쓴 뿌리를 죄로 고백하고, 우리가 사탄에게 넘겨준 모든 땅을 주께서 되찾아 주시기를 구하고, 비성경적인 생각의 요새들을 허물고,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실행 단계

1. 쓴 뿌리를 죄로 고백한다.

많은 사람들이 쓴 뿌리를 합리화한다. 우리는 가해자에게 당한 피해를 계속 나열하며 그들을 탓하는 것으로 우리의 죄책감을 정당화한다. 또 “쓴 뿌리는 없어요. 그냥 몹시 상처를 받았을 뿐이죠.”라고 둘러댄다. 그러나 숨길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가해자에 대해서 마음을 닫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요한일서 2:9) 어둠은 사탄의 영역이므로 쓴 뿌리를 가진 사람은 죄 가운데 살며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1:9)

2. 사탄에게 내준 땅을 되찾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다.

에베소서 4:26-27에 따르면, 우리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을 때마다 사탄에게 땅을 내주게 된다. 이때마다 우리는 사탄에게 내준 땅을 되찾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시편 23:3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위로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 확실하다. 여기서 소생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출발점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를 통해 사탄을 꾸짖으시도록 청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통해 획득한 땅을 찾아와야 한다.

3. 진리의 말씀으로 요새를 허문다.

우리가 내준 땅을 되찾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지만, 그 땅 위에 사탄이 세운 요새를 허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진리의 무기를 주셨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원한을 품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고린도후서 10:4)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받아들인 거짓 이론이나 결론을 모두 찾아 없애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서 ‘진리의 탑’을 쌓기로 작정해야 한다.

4. 가해자들을 용서함으로 자비를 베푼다.

이제 우리가 쓴 뿌리를 가지면 영적 파멸을 피할 수 없고, 용서가 어떻게 자비를 드러내는지 알았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똑같이 가해자를 완전히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한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31-32)